#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구나”…7년 세월 흘러도 슬픔 그대로

세월호 7주기 앞두고 목포·진도 찾은 유족

## 참사 당일 지휘 3009함정 지원에 구조업무 소홀 트라우마 떠올려
## 분노한 유가족들 선상추모식 취소
## 목포신항·팽목항 둘러보며 회한
## 조형물에 새겨진 편지 읽다 눈물

세월호 유가족들이 11일 오전 목포신항을 찾아 항구에 거치된 세월호를 둘러봤으며(왼쪽), 오후에는 진도 팽목항을 찾아 추모식을 진행했다.

“네가 올 수 없어 엄마가 왔는데….”, “많이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구나.”

세월호 참사가 난 지 7년이 되는 4월 16일을 앞둔 11일, 유가족들은 진도 팽목항과 목포 신항에 세워진 세월호를 둘러보며 인사도 없이 떠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꾸욱 눌렀던 슬픔을 토해했다.

특히 이날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릴 선상추모식을 위해 지원된 목포해경 3009함정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지휘함으로 쓰이면서 긴급히 후송해야할 피해자 대신, 지휘부가 먼저 헬기로 이송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구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유족들에게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선박이었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유가족들의 선상 추모식을 위해 3015함을 제공해왔다.

이 때문에 공감 능력이나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다.

이날 오전 7시부터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경전용부두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찾아왔다. 이들 26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진행키로 했었다. 이들의 얼굴에는 바다와 마주하면서부터 숙연함과 슬픔이 감돌았다.

참사 해역으로 갈 배를 타기 위해 대기중인 함정으로 이동하던 유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가족들은 목포해경전용부두에서 대기중인 배 앞머리에 3009라고 쓰여진 3000 t 급 경비정인 3009함정을 보면서 순간 어두워졌다.

3009함정은 참사 당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탑승해 세월호 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현장 지휘를 했던 곳이다. 특히 참사 당일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발견된 단원고 2학년 8반 임경빈 군이 옮겨진 뒤 헬기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세차례나 있었음에도 해경 지휘부를 옮긴다며 헬기 대신, 경비정에 태워 보냈던 함정이기도 하다.

유가족들은 탄식했고 분노했다. “저 배를 타고 참사 해역에 가라는 것은 부모들에게 참사해역에 빠져 죽으라는 것과 같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가족 30여명은 긴급 회의를 소집한 뒤 선상추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9함은 참사 당일 지휘함으로 이용된데다 우리 아이들을 헬기로 이송하지도 못해 사망으로 이르게한 용서할 수 없는 함정”이라며 “이런 함정을 선상추모에 배정한 해경의 행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의혹의 시선도 거두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 2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해경이 유가족들에게 보란 듯 3009함정을 배정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해경 반응도 유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더했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3009함이 세월호 구조 지휘함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을 위한 선상 추모 행사를 지원한다면서 6년 전 참사 당일 정부와 해경의 무능한 구조 능력으로 가족들을 분통터지게했던 배를 아무 생각없이 지원하는 게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찌 선상추모식에 쓸 배로 3009함을 끌고 올 수 있는가’, ‘정말 정 나미 완전 다 떨어지네, 이 정부’라고 썼다.

유가족들은 선상추모식을 취소한 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으로 발걸음을 옮겨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참사해역에 가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이 컸을까.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이 유독 많았다.

단원고 2학년 7반 고(故) 박성호 군의 아버지는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듯 세월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성호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할 뿐”이라고 흐느꼈다.

유가족들은 이어 진도 팽목항으로 옮겨 팽목기억관, 백동무궁화동산을 둘러보며 떠나간 가족들의 기억을 더듬었다.

팽목기억관에는 생전 아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학급사진과 전시품들이 전시된 공간이다. 백동무궁화동산에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새겨진 ‘기억의 벽’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안정현 군의 엄마 김정해씨는 조형물에 새겨진 편지를 소리내 읽다 북받치는 설움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주현아. 멋진 모습과 웃음을 이제는 볼 수 없지만 영원히 기억할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김정해씨는 “주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목포해경이 보유한 3000 t 급 함정 가운데 하나인 3015함이 해상경계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3009함정을 배정했다”면서 “16일에는 선상 추모식을 위해 3015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진도=글·사진 김민석 기자 mskim@

# 부통산 투기 관련 제보 잇따라…전남경찰 수사 본격화

##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아파트 분양권 팔아 이득 챙겨
## 부동산업자·청약자 무더기 검거…위장전입 청약자 64명도 적발

부동산투기 관련 제보가 잇따르면서 전남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뒤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긴 부동산업자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한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은 적발된 순천·광양지역 위장전입자 중 공직자 현황도 파악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11일 전남경찰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팔아넘긴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일용직 노동자·장애인 등 16명도 적발했다.

A씨 등은 이들에게 30만~2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산 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 한 채당 500만~7500만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놓는 이른바 ‘위장전입’ 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아낸 혐의(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로 광주·전남지역 64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의 경우 순천과 광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순천·광양의 빈 원룸을 찾아 집주인 몰래 주소를 이전한 뒤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혐의다. 경찰은 빈 원룸을 찾아 위장 전입했다가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반인들의 경우 비어있는 원룸 정보를 파악해 주소지를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 14건(189명)을 수사·내사 중”이라며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통보,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 중 나주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나주에서 아파트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나주경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2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A 아파트 19층에서 외벽 도색 작업중이던 A씨가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전 장비 등을 체결했는지, 2인 1조로 이뤄지는 작업인 지 여부 등 안전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결혼식 후 2시간만에 결혼 파기했다면?

## 법원 “배우자 입국해 한국서 결혼생활해야 혼인 성립”
## 결혼중개업자 국제결혼 비용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만난 외국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2시간 만에 결혼을 파기한 경우 혼인한 걸로 봐야할까.

국제결혼의 중개·계약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혼인’의 성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결혼중개업자 A씨가 라오스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파기한 B씨를 상대로 낸 ‘국제결혼비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맺은 국제결혼 계약에 따라 맞선 진행비 100만원을 받고 라오스에서 6명의 여성과 맞선을 주선했다. B씨는 맞선 다음날, 이들 중 한 명과 결혼식을 올렸고 라오스 호텔로 들어갔다가 2시간 만에 결혼을 파기했다.

여성이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게 사유였다. A씨측은 라오스 결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결혼 파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약정서대로 결혼비용(20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비용, 현지에서 빌린 지참금과 동네 잔치비용(1300달러·153만원)에 위자료(500만원) 등 2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약상 A씨는 B씨에게 외국여성과의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혼인의 성립’이란 국제결혼이 성사된 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실질적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중개계약상 수임한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B씨 책임만으로 혼인의 성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B씨 책임을 60%로 제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매각물건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아파트] | | | | | |
| 2020타경 5991 | 1 | 목포시 부흥로30, 102동 3층 302호 [상동,하당초원타운아파트] 59.97㎡ | 아파트 | 103,000,000<br>103,000,000 | |
| [대지/임야/전답] | | | | | |
| 2020타경 3896 | 3 |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14-4 747㎡ | 임야 | 37,632,000<br>37,632,000 | 일괄매각.맹지.분묘소재추정 |
| | | 동소 14-6 1045㎡ | 임야 | | |
| | 4 | 동소 298 499㎡ | 전 | 82,834,000<br>57,984,000 | 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20타경 5939 | 1 | 무안군 해제면 산길리 646-3 2030㎡[인접지와경계구분없이전으로이용중,남측일부는임야화된묵전상태] | 전 | 18,676,000<br>18,676,000 | 맹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20타경 6048 | 1 |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49 169㎡ | 대 | 5,070,000<br>5,070,000 | |
| | 2 | 동소 511 585㎡[현황묵답상태] | 답 | 31,785,000<br>31,785,000 |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 |
| | | 동소 513 1365㎡[맹지.현황묵전상태,매각제외비닐하우스소재] | 전 | | |
| 2020타경 6093 | 1 |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1296 3947㎡[김한진의지분1/3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 전 | 5,920,650<br>5,920,650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 2020타경 54580 | 1 | 무안군 운남면 연리 211-1 3834㎡[타지번과일단지로하여전으로이용중] | 전 | 92,016,000<br>92,016,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20타경 54580 | 2 | 동소 산371-3 1785㎡[원상회복명령가능성있음.타지번과일단지로하여전으로이용중] | 임야 | 39,270,000<br>39,270,000 | 현황전으로이용중 |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 | | | |
| 2020타경 6024 | 1 | 목포시 하당로153번길21, 7층 705호 [상동,로데오타운2] 60.5525㎡ | 오피스텔 | 47,000,000<br>47,000,000 | |
| [기타] | | | | | |
| 2020타경 4745 | 1 |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615-12 442㎡[현황창고부지] 소유자김광남 | 전 | 128,793,280<br>128,793,280 |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2공부상창고시설이나현황저온저장창고 |
| | | 동소 615-12 170.87㎡ 소유자 용정골영농조합법인 제시외 가추창고 154.6㎡ | 창고시설 | | |
| 2020타경 5182 | 1 | 선적항:목포시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해룡호 어선번호:9906003-6260002 선질:에프.알.피 총톤수:39톤 기관의종류와수:디젤600마력 1대[현황멸실]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일체형 1대 진수년월일:1999.6 | 선박 | 58,500,000<br>58,500,000 | 보관장소:목포시 북항 |
| 2020타경 5199 | 1 | 선적항:여수시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재영호 어선번호:9709004-6497102 선질:에프 알 피 총톤수:39톤 기관의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608마력 1대[현황확인불능및해체상태]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추진기 1대 진수년월일:1997.9.4 | 선박 | 195,780,000<br>195,780,000 | 보관장소:목포시 북항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4. 26.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5. 3.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임혜원 사법보좌관 오재홍